



이창희가 9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1라운드 12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선주 '무결점 샷'... 단독 선두

■ KLPGA KB스타투어 1R

올 들어 국내 여자프로골프(KLPGA)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의 아성에 도전하는 3년차 선수들의 자존심 회복과 신예돌풍이 거세다.

9일 4계절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 CC(파 72·6천270야드)에서 열린 올시즌 6번째 KLPGA 정규투어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1라운드에서 신지애와 팀 동료인 안선주(21·하이마트)가 버디 5개, 보기 없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쳐며 5언더파 63타로 1위를 지켰다.

국내 지존 신지애가 일본 정벌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스타가 탄생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대회 1라운드 주인공은 KB 국민은행스타투어 대회 '개막전의 여인' 안선주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 3년차선수들의 선두주

보기 없이 5언더... '개막전 여인' 기량 과시

신인 김혜윤 1타차 추격... 김하늘 1오버파

자 안선주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 개막전에서 우승, 개막전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역시 올 시즌 1차전에서도 선두로 나서며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다.

안선주는 1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기분좋은 출발을 한 뒤 7번홀에서 역시 한 타를 줄였고, 후반 들어 11번(파4)홀과 12번(파3)홀 연속 버디, 16번(파3)홀에서도 역시 버디를 기록해 5언더파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신인돌풍을 선도하고 있는 유소연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신인 김혜윤(19·하이마트)이 4언더파로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우승

자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김혜윤은 1번홀에서 출전선수 중 유일한 이글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고, 5번(파4)홀과 11번(파5)홀, 16번(파3)홀에서 역시 버디를 낚아 4언더파로 1타차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엘로드·휘닉스파크 클래식에서 우승했던 김하늘(20)은 1오버파로 부진했으며 유소연(18·하이마트)은 이븐파, 최혜영(18·LIG)은 1오버파로 초반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KB 국민은행 스타투어대회 2라운드는 10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오전7시부터 시작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민철·한태영 레슬링 '태극마크'

올림픽 대표선발전 우승

김민철(성신양회)과 한태영(주택공사)이 2008 베이징올림픽 레슬링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김민철은 9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국가대표선발전 2차전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최완호(구로구청)를 2-0으로 가법게 제압했다.

김민철은 3월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국가별 올림픽 쿼터를 따냈고 1차 선발전에서 이어 2차 선발전

에서도 우승하면서 올림픽행을 확정했다.

2005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김민철은 2006 도하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낼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레코로만형 96kg급에서는 1차 대회 우승자 한태영(주택공사)이 최종 선발전에서 기권을 거두고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다.

도하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땀던 한태영은 2차 대회 우승을 배만구(칠곡군청)에게 내주고 최종선발전까지 갔지만 배만구가 득골을 다쳐 경기를 포기하는 바람에 올림픽 티켓을 손에 넣었다.

앤서니 김 공동 9위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R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왕세자'로 등장한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2주 연속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앤서니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코스(파72·7천220야드)에서 열린 '제5의 메이저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9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리더보드 맨 윗자리는 6언더파 66타를 뿜어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차지했지만 무려 22명이 4타차 이내에 포진한 합계 루기에서 살아남은 셈이다.

전남도청 김대은 베이징행 무난할 듯

오늘부터 체조 올림픽 대표 선발전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 체조가 10~11일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2차 선발전을 열고 대표 선수 6명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달 1차 선발전에서 뽑힌 18명 중 6명을 추리는 데 마루운동-링-안마-도마-평행봉-철봉 등 6개 종목에 이를 연속 연기해 나온 성적을 50-50으로 반영, 성적순으로 1~3위를 선발하고 나머지 세 명은 성적과 기여도 등을 고려, 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뽑는다.

2004 아테네올림픽 개인 종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김대은(전남도청) 양태영(포스코건설) 쌍두마차와 평행봉 달인 유원철(포스코건설), 철봉 전문가 김지훈(서울시청) 등 간판 선수들이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대한체조협회는 이번 올림픽에서 평행봉과 철봉 중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년 만에 평행봉 금메달을 재현한 김대은을 비롯해 양태영, 유원철은 기량에서는 중국 선수들과 함께 세계 최강으로 평가 받는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견제도 심해 금메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철봉은 중국의 약세 종목인데다 독일의 파비안 함부엔 정도만이 강자로 여겨지고 있어 동작도 매킨고 기술도 좋은 김지훈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금메달을 따낼 수 있는 틈새 종목이다.

협회는 새로운 대표팀이 구성되면 18일 중국 베이징으로 가 최강 중국 선수들과 열흘간 합동 훈련을 펼치며 우정을 나눌 계획이다.

그에 앞서 이주형 대표팀 감독과 김승일(전남도청), 김수민(한체대), 김지훈은 14~15일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 월드컵에 참가, 기량을 견조히 베이징으로 넘어간다. <연필뉴스>

광주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개막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는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밝은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동 및 클럽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서문화 창조를 위해 '2008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대회는 오는 10일 맨스경연대회를 시작으로 3:3 길거리 농구(6월 22일), 축구(9월 27~28일) 등 3개 부문에서 열리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올 대회에는 중·고등부 총 148개 클럽, 1천4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10일 오후 7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야외무대인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리게 되는 맨스경연대회에는 20개팀, 1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 실력을 겨룬다.

이외도 3:3 길거리 농구는 오는 6월 22일 9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야외경기장

댄스·길거리 농구·축구

3개 부문 9월까지 열려

에서 열리고, 축구대회는 오는 9월 27일 ~28일 양일간 용산체육공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김창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스포츠 맨십과 선의의 경쟁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일(토)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R(02:00·SBS골프·SBS스포츠)

▲LPGA 미켈름 울트라 오픈 2R(03:00·SBS골프)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2R(12:50·XSPORTS)

▲K리그(경남:성남)(14:45·SBS스포츠)

츠)(수원:대구)(20:30·MBC ESPN)

▲2008 삼성 PAVV 프로야구(한화:LG)(16:50·XSPORTS)(기아:우리)(17:00·KBS N SPORTS)(두산:롯데)(17:00·MBC ESPN)

▲2008 WAT 테니스 준결승(21:00·SBS스포츠)

11일(일)

▲2008 LPGA 미켈름 울트라 오픈 3R(03:00·SBS골프)

▲2008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3R

(03:00·SBS스포츠·SBS골프)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3R(12:50·XSPORTS)

▲2008 KB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3R(13:00·KBS N SPORTS)

▲2008 삼성 PAVV 프로야구(SK:삼성)(13:40·SBS스포츠)(기아:우리)(한화:LG)(16:00·XSPORTS)(17:00·KBS N SPORTS)(두산:롯데)(17:00·MBC ESPN)

▲2008 K리그(서울:인천)(15:00·MBC ESPN)